

매튜 S. 하몬 박사, 성경의 활용, 제3강, 유형론적 패턴

(BiblicaleLearning.org 후원, 테드 힐데브란트 진행)

, 저는 매튜 S. 하몬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성경을 성경에 적용하는 방법'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 '유형론적 패턴'입니다. '

성경을 성경에 적용하는 방법' 강좌 세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성경의 활용법 연구: 일곱 가지 해석학적 선택』이라는 책에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특히 6장에서 다루는 유형론적 패턴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책에서는 유형론적 패턴을 과거 지향적 패턴과 미래 지향적 패턴 사이의 선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설명드리겠지만, 이는 학계에서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먼저, 유형론 또는 유형론적 패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론적 패턴이란, 점진적 계시라는 역사적 틀 안에서 인물, 사건, 제도, 절차, 신탁 또는 이들의 조합 사이에 선택적이고 기대에 부합하는 유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경을 구성한 것을 말합니다. 아마 이 설명을 읽고 나서 "이게 영어로 된 건가?"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꽤 복잡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의의 각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절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형론적 패턴은 의도적인 성경적 형태 형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인 성경적 형태 형성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의도적인 성경적 형태 형성이란 수용 본문의 저자가 인물, 사건, 제도 등을 특정한 방식으로 묘사하여 원문과 수용 본문 사이의 유사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후대의 성경 본문 저자는 인물, 사건, 제도 등을 의도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묘사함으로써 독자가 초기 성경의 인물, 사건 또는 제도와 유사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일치에 의한 유추가 아닙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선택적이고 기대에 기반한 유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수용 텍스트의 저자가 원본 기증 텍스트에서 선별된 세부 사항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아담 사이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할 때, 그는 아담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나열한 다음 "아,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비유의 특정 요소만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대'라는 용어는 그것이 단순히 문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묘한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면 원문, 즉 전달 텍스트가 구속사 내에서 나중에 일어날 어떤 일이나 인물을 예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에 관한 핵심입니다. 이제 정의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물, 사건, 제도, 절차, 신탁, 또는 이들의 조합. 이것들은 단순히 다양한 유형의 예표일 뿐입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러한 것들은 후대의 더 크고 중요한 현실을 예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틀. 유형론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텍스트들 사이의 느슨한 철학적 연결고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세기, 신약성서가 쓰여지던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유대인 작가 필로의 작품을 읽어볼 기회가 있다면, 그가 창세기를 해석하는 방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들이 영혼의 진리, 즉 미덕과 악덕 사이의 영혼의 투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유형론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점진적 계시입니다.

이는 유형과 반대 유형 사이에 점진적인 고조 또는 상승이 있다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형을 생각할 때, 모세를 떠올려보면 모세는 그리스도의 유형 또는 예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세는 유형입니다.

그리스도는 반형(anti-type)입니다. 그런데, 반형이라는 표현은 다소 부적절하게 들립니다. 그저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원형 또는 그림자가 있고, 그 실체 또는 최종적인 실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반형식, 즉 성취가 어떤 면에서 원래의 모형보다 더 크거나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모형으로 사용되는 사건 중 하나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원래의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비롯한 후대의 예언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 구원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낸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출애굽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출애굽이 원래의 출애굽보다 훨씬 더 위대할 것임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고조되고, 심화되고, 격화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유형론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미래지향적 또는 과거지향적 유형론에 대한 논의를 어디서 시작했는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학계 내에서 유형론이 미래지향적인가 아니면 과거지향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유형론이란 원래의

맥락 안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유형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유형론이 제시되는 방식 자체가 미래에 더 위대해질 인물이나 사건을 기대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제임스 해밀턴이 있습니다.

그는 유형론에 관한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 저자들이 글을 쓸 때, 그들은 독자들에게 약속의 형태를 띤 패턴이 존재함을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저자들은 반복되는 사건의 순서에 주목하도록 하려 했고, 미래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해밀턴이 지적하는 것은 모든 유형론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문, 즉 원천 텍스트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좋은 예로 신명기 18장을 들 수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두어 그가 내 명령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 방식은 여러분이 즉시 미래를 바라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의 모형이고, 하나의 본보기이며, 하나의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전개됨에 따라, 그는 모세와 같은 인물일 뿐만 아니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 해밀턴과 같은 학자들은 모든 유형론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합니다. 유형론은 원문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형론은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형은 오직 회고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유형이나 완성이 나타났을 때에만 비로소 원래의 것이 실제로 유형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는 학자로는 리처드 헤이즈가 있습니다. 그는 "형상적 대응 관계의 식별, 즉 그가 유형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필연적으로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이다"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도형의 두 극단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대응 관계는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여 첫 번째 사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후에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대되는 형태를 보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 유형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아, 저건 유형으로 의도된 거였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유형론의 좋은 예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쓴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여 새 누룩 없는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이것은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실 분을 가리킨다” 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후대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회고적 또는 과거 지향적 유형론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일까요? 미래지향적일까요? 아니면 과거지향적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미래지향적이든 과거지향적이든 두 가지 유형의 유형론의 예를 모두 보여줍니다. 이제 성경에서 유형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작용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명확한 예 중 하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로마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하물며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얼마나 더 넘치겠느냐? 은사는 그 한 사람의 죄의 결과와 같지 아니하니라.”

한 범죄로 인한 심판은 정죄를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후에도 주어지는 은혜는 의롭다 함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 노릇 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왔듯이, 한 의로운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함과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욱 늘리려고 왔지만,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처럼, 은혜도 의를 통해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구절은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4절을 다시 살펴보면, ESV(영어 성경)는 마지막 구절을 “오실 분의 모형이 된 자는 누구였습니까? 오실 분의 본보기가 된 자는 누구였습니까?”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유사점을 보여주는 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표에서 어떤 유사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어떤 유사점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에게 퍼졌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넘쳐흘렀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임한 심판은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죄악을 덮었고, 결국 의롭다 하심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아담의 죄악 때문에 사망이 그를 통해 왕 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얼마나 더 왕 노릇 하겠습니까?” “
얼마나 더”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은혜가 더욱 커지고, 더욱
강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대조적인 점입니다. 율법은 죄가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습니다. 결국 죄는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하였습니다. 은혜는 의를 통해 왕 노릇 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보시다시피, 바울은 그리스도와 아담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가 반(反)모형으로서 어떻게 원모형을
뛰어넘고 더 위대하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명확한 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부터 살펴본 후,
당장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또 다른 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펴보시죠.

이것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 하셨다. 사십 일 밤낮을 금식하시다가 배가 고프셨다.”

유혹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라고 명령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매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께 이르되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마귀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하시니라 하니
마귀가 예수를 떠나갔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다.

자, 우리는 그 구절을 읽고 ‘아, 비교적 간단한 이야기네.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읽는 것도

유익하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본문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풍성한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과 예수 사이의 유사점을 보여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예수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맏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보내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등호에 사선을 그어 놓은 것은 두 상황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식량 부족으로 유혹을 받았을 때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굶주림 때문에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유혹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 부족으로 유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시험하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며 저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들을 섬기려는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악마를 섬기면 세상 모든 왕국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세 구절이 모두 신명기 6장과 8장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과 8장을 다시 살펴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면, 예수님은 단순히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구절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며 구절을 골라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릿속에서 구절을 찾다가 신명기 6장의 한 구절을 꺼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과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실패했음을 상기시키는 전체적인 문맥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들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들을 인용하신 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곳에서 자신은 순종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그는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유혹을 성공적으로 물리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부분에서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점은 둘 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결코 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약속된 아들일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삼위일체의 제2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더욱 강조됩니다. 어쩌면 조금 덜 분명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태가 예수님의 광야 경험을 묘사함으로써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연결고리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유형론의 또 다른 예, 어쩌면 좀 더 미묘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형의 본질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식을 되짚어보면서 몇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를 생각할 때, 일종의 시간적 현실이 존재하죠?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한 선이 있고, 그 선이 반대되는 형태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선명하고 굵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유형론을 설명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그림자와 실체라는 언어입니다.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유형과 과거를 내다보는 유형의 차이를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유형론에서는 본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미래의 실체를 예언하는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관점에서는, 구약성경에 희미하게나마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형을 보기 위해서는 후대의 현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순방향적 모형론과 역방향적 모형론을 이해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차원 외에도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공간적 관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천상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하나는 초기 성경에 나타난 모식표현, 즉 그림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그 후대의 완전한 실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모식론에는 공간적, 시간적 역동성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 유용한 도표는 지오르다노 보스의 저서 『히브리서의 가르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유형론의 본질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번의 반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형론적 패턴은 때때로 그 원형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번의 반복을 거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려는 것은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자체를 살펴보면, 그와 유사한 형태가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를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모형'이라는 용어가 가장 유용한 표현은 아니지만,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기 전에 원형과 실제 사이에 그 패턴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잘 살펴보시면, 이 사이에 여러 시점이 있습니다. 노아를 떠올려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피조물, 모든 동물에게 너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아담의 패턴이 반복되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실제로 그러한 패턴이 적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이 세워지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마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도 그렇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도 좀 비슷하게 들리고요.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요점은 최종적인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 이러한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호흡 한번 하세요. 아마 '좋아, 우리가 여기서 미쳐버리는 걸 막을 방법이 뭐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비유든 보면 '아, 멋진 유형론이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적어도 한 가지 유용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유추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유형론적 패턴에는 세부 사항에 대한 선택적인 유추적 사용이 있으며, 원래 맥락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실제 역사적 사건에 기반하며, 결정적으로 기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간 열에서 우리는 확장된 메아리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줄에 이르기까지 유형론적 패턴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들은 기대적인 요소가 아닌 문학적인 요소를 가진 유추 지점들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아내 사 را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는 사 라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아들 아이작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아내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유형론과는 거리가 멀죠.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더 크고 장대한 패턴을 예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문학적 효과를 위한 비유일 뿐입니다.

제 생각에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삭이 아버지의 실패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화도 있습니다. 우화에서는 텍스트의 모든 세부 사항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아내려고 애씁니다.

원래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추가된 또는 문맥 외적인 틀을 본문에 덧씌우는 방식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는 어떤 틀이나 철학적 틀을 가져와 텍스트에 적용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의미를 억지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해석학적이거나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과거 지향적 유형론의 좋은 예시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즉, 원래 맥락에서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생각할 만한 근거가 없는 본문들이 있는데, 신약의 계시에 비추어 보면 그것들이 모형론적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 처형 이야기를 읽어보면, 시편 22편을 암시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22편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모두에서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그의 적들이 그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 처형에 대한 기록에서 묘사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실, 우리는 네 복음서 모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도 다윗은 그의 적들이 그를 조롱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십자가 장면을 묘사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욕설을 퍼붓고, 고개를 흔들고, 조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도록 맡겨두세요.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시편 22편에 묘사된 내용에 비추어 십자가 처형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편 22편을 읽을 때, 마지막에 “아, 이건 미래에 오실 메시아께서 더 큰 고난을 겪으실 것을 예고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다윗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어쩌면 과장된 표현이나 시적인 표현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미래를 가리키고 계시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관점에서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꽤 많네요. 유형론은 재미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며, 생각해 볼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실 때 성경 안에 유형론적 패턴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는 신적인 저자가 의도하신 것이지만, 그 실체를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대의 계시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여러분이 실제 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즐겨보신다면, 범죄 현장 조사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루미놀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루미놀이라는 화학 물질을 방 안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혈흔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방 안 어디에든 피가 있다면 루미놀이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혈흔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이 물질을 뿌린 다음 불을 끄고 특수 자외선 조명을 가져옵니다. 그 조명을 비추면 피가 묻은 자리가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있는 피를 볼 수 있습니다.

루미놀은 혈액을 그곳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 존재하는 혈액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지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렌즈나 도구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형론이 종종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들이 있어야 비로소 텍스트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설이든 영화든, 좋은 미스터리 스릴러는 다 그렇죠. 끝까지 보고 나면, 아, 범인은 정육점 주인이었구나. 총대를 사용했고, 사물함 안에 있었잖아. 그런 반전에 살짝 놀라곤 하죠.

그런데 그들은 아마 중간에 놓인 단서들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아, 정육점 주인이 총대를 만지던 그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네.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말해주니까, 아, 그게 단서였구나." 이런 식이죠.

하지만 나중에 그 소설을 다시 읽거나 영화를 다시 보면, 그 부분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그걸 놓쳤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죠. 유형론적 패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원작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나중에 그 반대 유형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유형론적 패턴은 미래지향적일 수도 있고 과거지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마흔구석에 이런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해석자로서 우리는 성경 저자들이 명시적으로 밝힌 것 이상으로 성경 안에서 유형론적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이 중 일부는 꽤 명백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성경 저자들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탄탄한 기반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덜 명확한 예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신약성경에서 여호수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는 구체적인 구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에게 그들의 유산을 나누어 준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는 것과 매우 유사한 본보기나 그림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접할 때, 우리는 해석에 있어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분명한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형론은 미시적 수준보다는 거시적 수준에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붉은색이 있는데, 또 뭐가 붉은색이지? 예수님의 피가 붉은색이네." 와 같은 식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피가 내려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형적인 예표 해석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더 큰 구조와 그 사람, 사건, 기관 등과의 여러 접점을 중심으로 작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유형론적이라고 생각되는 연결고리를 다루고 식별할 때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연결고리를 너무 짊 붙잡지 말고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유형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례 연구를 통해 후대 성경 저자가 초기 성경 본문을 어떻게 언급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매튜 S. 하먼 박사가 '성경이 성경을 활용하는 방법' 시리즈 강의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번 세션은 세 번째 세션인 '유형학적 패턴'입니다.